

2018년 12월 13일, 제주시 이도2동 신설동경로당, 이현정 조사.

고순오(여, 1928년생, 제주시 이도2동)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출생, 고향에서 30여 년간 지내다 이도2동로 옮겨 60여 년간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옛날 의붓딸과 친딸을 키우는 여자가 있었다. 의붓딸은 콩데기, 친딸은 풋데기라 불렸는데 마음씨 나쁜 여자가 의붓딸에게는 콩죽만 주고, 친딸에게는 좋은 팥죽만 먹였기 때문이다. 하루는 여자가 친딸만 데리고 잔치에 가면서 콩데기에게 터진 항아리에 물을 다 기른 뒤에나 오라고 말했다. 때마침 새들이 날아와 터진 항아리를 막아주어 콩데기는 잔치에 갈 수 있었다. 콩데기는 잔치에서 꽃신 한 쪽을 잃어버렸는데, 콩데기에게 반한 멋진 도령이 꽃신을 주워 신이 발에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풋데기는 마음씨가 나빠 멋진 도령과 결혼하지 못하고, 마음씨가 좋은 콩데기는 꽃신이 발에 꼭맞아 멋진 도령과 결혼했다.

[조사자] 콩데기 팟데기 얘기 좀 해줍서.

[제보자] 콩데기 풋데기? 옛날 뜰 두 개 키우멍. 다슴뜰하고 이녁뜰하고 이제 원 뜰은 풋죽만 쐄운 맥이고 다슴뜰은 콩죽만 쐄운 맥이나네. 풋 맛좋은 거난 이녁 뜰은 풋죽만 쐄운 맥이난 막 솔젖어. 다슴뜰은 콩죽만 쐄운 맥이난.

옛날도 풋죽 세 번만 헤 먹으민 집안 망한덴 우리 헤 낫지 안헷우과. 그 풋도 것이고 또 쌀이 들어야 돼니까. 거난 쌀이 어렵주게 어려워. 거난 기추룩 말이 나낫어.

풋데기 어멍이 잔치를 먹으레 가젠 허난. 항에 터진 항에다가 다심뜰은 이것에 물 혼나 ?득여 뒤그네에 오렌 경헤네 지 난 딸만 둘양 가 불엇거든. 경헌데 어디서 새덜이 막 놀아오라네 그걸 막았젠허는 거라. 막아주난 이젠 물을 그 동으로 하나 채왓어. 채완 그 뜰이 이젠 잔치 먹으레 가나네.

어떻ㄣ 물 다 안 채워된 왓넨 허난. 물 다 채왓던 허난. 이젠 바래 보니까 물은 채완 잇거든. 거난 그 새가 도와줘 분 거라.

경은 헌데 그 다음에는 그 끗데기는 그디 도령이 멋진 도령이 잇이난. 큰어멍  
네 뜰을 허젠 허나네 잔치 가젠 하나네, 꽃신을 이젠 한 착을 일러 불언. 한 착  
을 그 남자가 봉가네 이 신이 맞는 사름안테 장게가肯 헤그네 거 봉간 혜부난.  
다슴뜰이 신은 아니고 그 아방 뜰이 헤네 그 짹은 잘 웃덴, 결혼혜연.

[조사자] 어디서 들언마씨?

[제보자] 아, 이런 말은 막 어디서 들은 걸 어떻. 막 옛날에, 이건 옛날 말이지. 게난  
'모음이 나쁘민 안 웬고 모음이 좋으며는 좋은 무시 것이 웬다.'  
그 말이지게. 게난 큰어멍이게 큰어멍이 뜰도게 모음이 좋양 놔두난. 지네 뜰만  
잘해주젠 허난 더 안 웬 불엇거든게. 게난 결혼도 건 못허고.

- 핵심어: 콩데기, 끗데기, 다슴뜰(의붓딸), 콩죽, 새, 잔치, 도령, 꽃신, 장게(장가), 결혼, 모  
음(마음), 뜰(딸)